

이재명 선두 속 '이·정 단일화' 가능할까?

〈이낙연〉 〈정세균〉

뉴스 초점

더불어민주당 대권 예비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부터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민주당이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치권에선 전남이 연고지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전북이 고향인 정세균 전 총리간의 '호남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경선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 후보에게 힘을 보태 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 많은 정책을 함께 토론한 토대를 바탕으로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후보 간 정치적 합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이른바 '반명연대'로 범전민 진영이 집결하는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非)이재명계 후보들의 합종연횡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본 경선에 진입한 후, 단일화를 이룬다면 경선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총리와 당 대표 등을 지내며 정치판에서 리더십이 검증된 거물급 주자인데다 지지층의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고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친문 진영의 지지도 함께 받고 있어 친문 주

정세균, 이광재와 단일화 승리
1위 이재명 견제 연대 '신호탄'
이낙연·정세균 호남 후보들
단일화 성사 땀 경선 판도 변화

류와 거리감이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확연한 대치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이 전 대표가 지난 3일 정 전 총리와 전격 오찬회동을 하는가 하면 정 전 총리는 이날 단일화 발표 후 이 전 대표의 대권 출사표 행사장에 참석, 연대 및 단일화 행보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정 전 총리와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된다"고 답변, 가능성 열어줬다.

하지만, 이 지사를 겨냥한 연대 및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판을 뒤엎기에는 힘이 부족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이 지사와 상당한 격차가 있어,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민심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나서더라도 대형 변수 등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본선이나 결선 투표에서 역전 드라마를 쓰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두 후보 모두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단일화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독자 원주를 내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와 친이재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추미애 후보와의 연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본선 경쟁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미래 비전과 과감한 이슈 파이팅 등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단일화를 통한 역전 드라마 연출'의 선제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오른쪽)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국회 소동관에서 정세균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은 지역 출신 보다는 정권재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가 본선에서 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는 단일화에 앞서 지지율 제고 등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수 경도·광양 인서 순천 왕지2 지구 전남도, 공직자 투기 수사 의뢰

전남도가 도,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벌인 토지 투기 조사 결과 3건의 투기의심 유형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 공직자 2490명, 22개 시·군 공직자 1만8673명, 전남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600명 등 총 2만1763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72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단장인 도 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도내 40개 개발지구의 토지 취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구별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23건(25명·44필지)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추가조사를 거친 후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남도 토지 투기 심의위원회'에서 20건은 투기 의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3건(5명·9필지)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3건에 대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순천시 1명 6필지,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양시 3명 1필지, 여수 경도 관광단지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2필지다.

전남도는 또 공직자 투기 조사와 별도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3건(3필지)에 대해서도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김세균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로 수사 의뢰한 공직자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게 문책할 예정”이라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땅끝호텔, 5년 째 문 닫고 방치 ... 새 활용방안 찾아야

행안부 “공기업 손 떼라” 명령
오동재·영산재도 가치 하락
관광객·청소년·농어민 활용을

해남 땅끝호텔이 5년째 매각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땅끝호텔만이 아니라 오동재, 영산재 등 전남개발공사가 보유한 호텔 모두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개선 명령에 따라 매각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전남도민의 재산 가치만 하락하고 있어 향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활용하거나 전 시·군·자치단체 공공기관 연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 6월 호텔 운영이 민간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해남 땅끝호텔, 영암 영산재, 여수 오동재 등을 민간에 넘기라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내 호텔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막혀 있는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호텔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없다는 것이 공사측의 해명이다.

땅끝호텔은 전남도가 지난 2009년 법원 경매로 35억여원에 낙찰받아 리모델링·비품 구입 등에 약 50억원을 투입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행안부의 개선 명령 이후 매각에 나섰다. 2차례 매매계약까지 체결됐으나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 지급이 안 돼 파기됐으며, 이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오히려 혈세만 계속

투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계속 떨어져 감정가의 50%인 35억여원에 매각공고를 냈지만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올 들어 땅끝호텔을 애견호텔,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2곳의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오동재와 영산재는 현재 임대료 각각 연간 5억 6000만원, 3억5000만원의 조건으로 위탁 운영중이다. 공사는 이들 호텔 2곳도 조만간 공고를 내고 각각 270억원과 96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호텔에는 274억원, 110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오동재는 매수자가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면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영산재는 최근 116억원에서 96억원으로 감정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2019년 6000만 관

광객 시대를 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 호텔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의논을 전제로 이들 호텔을 공공기관 연수 및 세미나, 청소년이나 농어민 대상 수련 및 워크숍, 소규모 전시장 등 공적인 용도로 활용하면서 민간의 수요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 이후 이를 이행하는데 주력했지만 여건과 상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들 호텔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저렴하게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 날, 학복 전남 경찰관은 보이지 않았다 ▶6면

굿모닝 예방 - 행복한 도시농부 ▶18-19면

올 첫 우승 KO ... 올림픽 금 GO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가 달립니다
대한민국이 달립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확정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달립니다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영호남을 잇는 길이 아니라, 막혀있던 동서화합의 물꼬를 트고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역사적인 큰 걸음입니다.

1시간대에 영호남이 왕래하고 산업과 물류, 정보와 문화관광 교류가 촉진되어
광주-대구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
Gwangju

광주승정
Gwangju Songjeong

서대구
Seodaeju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길이 198.8Km,
4조 515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하는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